

# 지도력부재와 무절제가 빛은 난장판

지난 대동제를 반성한다

신록과 낭만이 숨쉬는 5월 그리고 5·18항쟁의 기억이 함께 남아있는, 엇그저께까지만 해도 민자당분쇄, 광주항쟁계승 등을 외치던 캠퍼스가 대동제를 치렀다. 낭만과 현실의 교차로 속에서 대동제의 진정한 자리매김을 어떻게 내려야 할까?

이에 '올바른 우리문화의 형성과 대동단결'이라는 전제로 목적의식적인 비판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날인 22일의 '통일노래한마당'은 총학생회와 참가자들의 준비부족으로 행사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진행됐다. 또 중간에 치러진 무용시범은 집단문화와 민중문화에 기반하지 않은, 어음으로서는 지나치게 보여주기식의 개인공연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날(23일) 진행된 총여학생회의 '여성학교', 동아리연합회의 '고향사랑의 밤' 등은 여전히 고질적인 참여부족현상을 나타냈다. 참여부족을 기층의 이해부족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굳이 찾는다면 자치기구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게 패인 무관심과 방관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일방적 선사였으며, 노천극장 주위에 있는 방관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한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24일은 오래달라기와 과별운동대회가 잘 진행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떤 형식으로는 모든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은 것이다.

마지막날의 '경희가족 한마당'은 양 캠퍼스 학생 전원이 참여하는

특히 서울캠퍼스 공연은 민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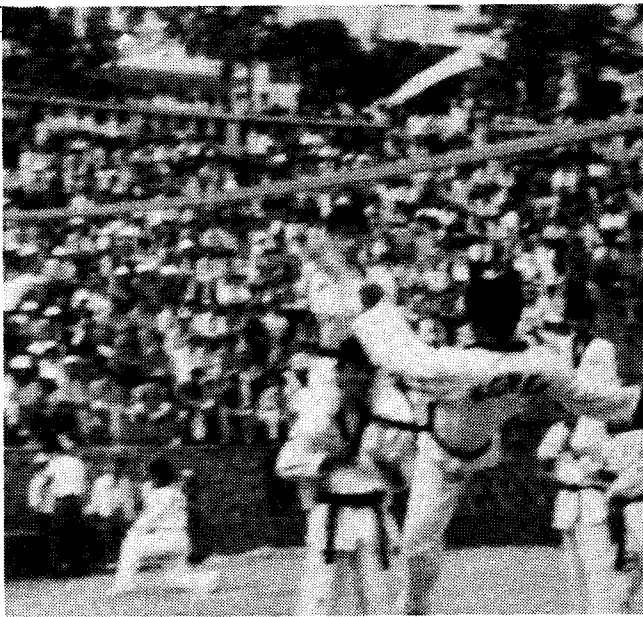
문화, 집단문화에 기반하지

못한 보여 주기식 공연이

많은 대동제의 의의를 충

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 준비과정부터의 공개·참여 부족으로 전체 결집 못이뤄 대중의 형식과 요구에 근거한 내용으로 다가서야

대동제의 정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고 대중성을 얻은 것은 아니며 이중 전체 분위기의 고양과 응집을 목적으로 한 웅변단 시범은 결국 유행가, 박수속에서 왜곡된 분위기로 어설픈 집중을 보였다. 또한 극단 '이리랑'의 초청공연 '점아점아 종점아'는 해학과 내용, 구성 등에서 관객을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했으나, 기성연극인의 세련된 공연이 교양신인 분위기를 계속 연결할 수 있는 주제적 행사의 미흡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와함께 대동제 기간중의 각과나 동아리별로 전시회, 주점 등 다양한 준비가 있었던 반면, 주제와 자체의 교류가 부족했다. 이는 학생대중의 무관심과 방관을 닮기 보다는 오히려 준비과정부터의 공개와 참여를 통해 전체를 결집해야 할 것이었다.

한편 수원캠퍼스의 서천대동제는 단대 학생회 등 하부단위에서 철저 준비가 되었고 학습세미나, 문화행사 등 내용면에서도 충실한 면을 보였다. '팔각' 마당극 등 공연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참여도는 여전히 낮았으며, 24일에 있었던 '의대문화제'는 학우들이 그들의 과 공연만을 보고 나서 바로 퇴장해버리는 비참하지 못한 모습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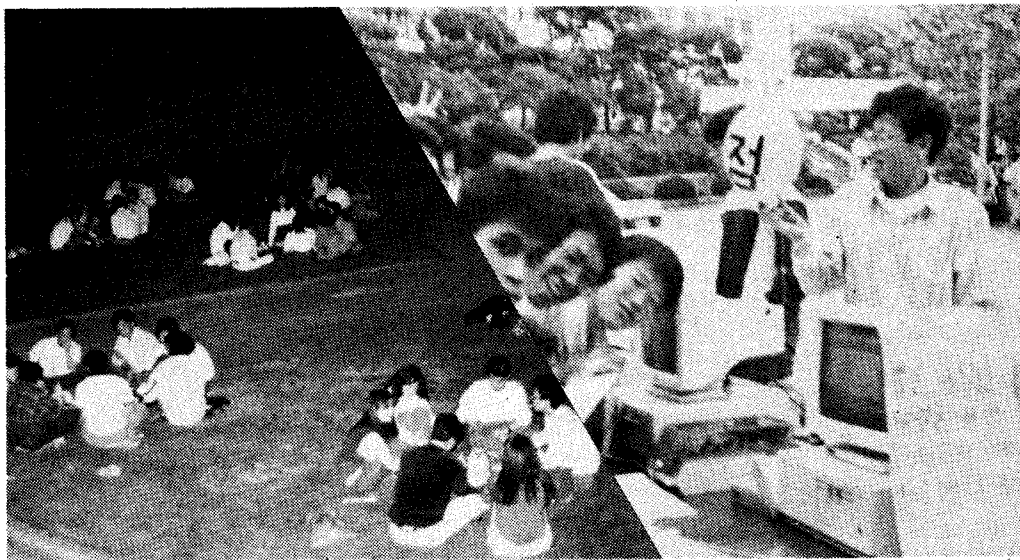
서천대동제의 전체적인 면을 볼때 각단대별 행사가 총학생회 행사로 모아지지 못해 산발적으로 진행된 점과 노점상 출입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

이번 대동제는 행사뿐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치 시골 5월장처럼 처러진 느낌이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특히 노점상이 너무 많았고 심하게는 아바위 등의 도박판이 등장할 정도로 혼란했다. 한편 주점이 철회되는 24일과 대동제가 끝난 25일 밤에는 늦은 시각까지 구석구석 술판이 벌어져 학교 전체가 술냄새와 배설물의 악취에 휩싸였다. 음주문화도 대동제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힘든 학생들이 술을 벌여 고성방가와 욕설을 하는 동안 본관 대학원 건물에서는 야간수업을 하고 있었고, 결국 술판의 고성방가는 다른 학생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호텔경영전문대학이 같은 기간동안 '영향제'를 치르면서 통제가 어려웠던 점이나 대동제의 중심공간인 노천극장 주변을 지나치는 학생들을 묶어세우지 못했던 문제점도 있다.

이번 대동제기간에 나타났던 문제점의 많은 부분은 행사내용에 대한 학우대중의 불만이 잠재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개별 학과, 학생들의 주제적 참여와 학생회의 준비과정에서 학생대중을 끌어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형식과 요구에 근거한 내용으로 다가서야 한다. 한편 각학과별 주제적 참여와 스스로의 소동(小動)놀이를 통해 공연이나 행사위주의 대동제가 아닌 집단놀이문화 공유함으로써 관심있는 부분만 찾아 보게되는 일방적인 공연문화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즉 행사장 주변을 거닐어보는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술이 있어야 논다.'는 우리의 그릇 인식된 속성을 극복해야 한다. <문화부>



대동제 기간 내내 학원은 술판과 아바위가 난무했고,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한채 제각기 따로 놀아버리는 학우가 물결을 이뤘다.



하부단부터 준비된 서천대동제, 내용상, 충실성을 기했으나, 공연물의 고질적 외면현상은 여전했다



## 민족문학작가회의를 찾아서

민족문학작가회의는 민족문학을 추구하는 문인들의 모임이고 조직이다.

"월간창작 직후 우리는 문학이 민족문제의 역사적 자기전개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한 나머지 이윽고 민족문학작가회의를 창립한 바 있습니다."

지난 초봄, 고은 신임회장의 인사말을 생각하며 찾은 마포경철사 뒷편의 사무실 유리창에 걸린 '타도', '퇴진', '사수' 등의 글자들이 받은 원가 실상치 않은 느낌은 그동안 이곳에서 보인 활발한 투쟁사업, 그에 따른 많은 회원들의 희생사실에서 더욱 확인해볼 수 있었다.

작년 1월초의 남북작가회의 추진과 구속, 민족문화고교실 운영, 참교육을 위한 민족문화의 밤... 이처럼 계속되는 투쟁의 열기속에서도 '모든 문화운동은 결국 창작으로부터 비롯될 수 밖에 없다'는 철저한 전제는 계속적인 창작집을 남겨왔다. 청년문학인위원회가 펴낸 '들꽃같은 남정네들, 분꽃같은 아낙네들', 노동문학위원회의 '바리케이트를 치며'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미 민족문학작가회의는 이제까지의 개별창작에 의한 예술적 완성미에서 새로운 조직창작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대신인지 오는 6월 16일 있을 노동문학위원회(회장 김남

주)의 출범식을 소개하는 이규배 간사의 말엔 더욱 힘이 있었다.

"노동문학위원회는 결국, 조직창작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조직창작은 철저히 그 조직의 지향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방법은 개인·집단창작 모두가 있겠지요"

이밖에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올가을 '노동문화의 밤' 개최와 기관지 민족문학운동 창간호를 곧 발간할 예정이다.

회원 6백여명의 사실이 무색했던 작고 초라한 사무실, 그러나 이곳은 이땅 끝없는이의 양심과 투쟁의 견고한 성이었다.

<銘>



일년에 정기적으로 두번 여는 민족문화고교실, 매일 약 1백 여명의 수강생이 모인다. 소설가 천성세와 학생들의 표정이 무척 진지하다.

## 서울캠퍼스 다양한 공연 연이어

경희극장의 '새벽이 오면'

민족을 추구하는 본교 총연극회 '경희극장'이 단원전체의 공동창작품인 '새벽이 오면'을 오는 31일부터 무대에 올린다.

이번 연극은 광주항쟁의 패배감에 잡혀있는 한 남자가 악조건에서도 파업에 들어가는 여직공을 통해 자신의 곁집을 깨고 광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으로써 기획은 연재무, 연출은 이종우가 맡았다.

공연일정은 A, V엔타 지하에서 31일과 6월1일은 오후 3시, 6시에, 6월2일은 오후 2시, 5시에 상연한다.

80년대 한국영화제 개최

영화연구회 '그림자놀이'가 80년대 한국영화 6편을 준비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상영하게될 이번 영화는 대도시의 소외된 계층을 통해 불합리와 부조리의 사회적 일면을 보여준 이창모 감독의 '바람불어 좋은날'을 비롯하여 '만다라' (두 스님의 고행과 과거를 통해 인생의 덧없음을 표

현) '꼬방동네 사람들', '길소뜸' 연극으로 더욱 유명한 '철수와 만수'와 '성공시대' (자본주의 출세주의 일반화로 된 현사화를 꼬판)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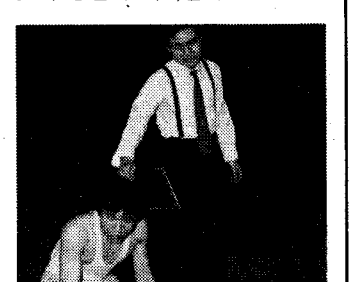
일본영화수입이 고개를 치켜든 요즘, 이번 영화제는 우리 영화의 위치를 다시한번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노래패 '동트는 새벽'의 노래공연

정경대, 가정대 연합 노래패 '동트는 새벽'이 오는 31일 6월 1일 이틀간 노천극장에서 정기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1, 2, 3부로 나뉘어지며, 1부는 '87년 이후의 정세와 3당 합당의 배경'에 대해, 2부는 민자당의 비리와 반민중성의 폭로, 3부는 현정세에서 민중이 나아갈 길과 민주세력들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민주화실천 장기수 가족협의회가 공동주최하였으며, 1부에서는 고대국회의 연극 '저인망'에 이어 불탄조국의 불모, 장기수 금 양심수'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으며, 2부에서는 '예율림'의 노래 공연이 이어진다.



이번 문화제는 5월에서 6월로 이어지는 변혁운동의 흐름에 올바르게 복무하고, 더불어 사회운동단체와 대학 문화동아리의 실천적 결합을 이루냄으로써 문예운동의 전진을 창출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 제5회 ATLAS전시회

제5회 ATLAS 작품전시회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본교의과대학 미술부 ATLAS주최로 의과대학 의약관 지하에서 개최된다. 본교 아르미애와 동국대 다스미가 주최하는 수채화교류전이 1차 동국대 전시에서 이어 2차로 본교에서 오는 24일부터 열린다.

사람을 소중히, 꿈을 소중히  
꿈을 실현하는 젊은이들

## 가슴가득 젊음안고, 배낭가득 꿈을담고...



"정신의 편력은 경험의 편력과 맞먹는다. 여행의 양이 곧 인생의 양이다." 굳이 이런 격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여행은 누구나 가장 해보고 싶어하는 것중의 하나로 꼽힌다. 배낭 하나로 세계를 주유한 변대중(28세) 그는 20일간의 국내부전여행경험이 계기가 되어 학업도 중단하고 해외여행을 떠났을 정도의 여행광이다. "생활이 인생의 산문이라면 여행은 인생의 시입니다. 여행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만족시켜 주지요." 그는 여행을 좋아하는 몇몇 젊은이들과 함께 자신들의 해외여행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에 배낭여행 전문의 여행사를 차렸다. "배낭여행은 비용도 절감되지만 그 나라의 문화 등 참된 진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따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가 수많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느낀점은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도 세계를 누비면서 국제적 안목을 키워야겠다는 것이다. "이제 해외여행은 더이상 사치가 아닙니다. 특히 젊은이들 외국에서 보고 듣고 배운것은 그대로 국력이 됩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볼수록 자기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되니까요."

꿈을 향해 의지를 불태우는 젊은 이야기를 찾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된 이야기는 대학지공으로 소개하고 소정의 고료를 드리겠습니다. \* 보내실곳: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우체국 사서함 47호 '人材第一' 편집위원회/TEL. 730-9711

인재와 첨단기술의



배낭 여행가 변대중  
● 81년 동국대 입학  
● 86년 10월부터 88년 4월까지 세계 여행